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 진행

위대한领导者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연전축면적이 근 1만m²에 달하는 종합체육관은 통구, 배구, 실내축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를 진행 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관람에 필요한 운 갖 조건이 그려져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이다.

위대한领导者 김정일장군님께서 개관식장에 나오시자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은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 주시고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체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토의 정

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개관식에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체육상, 인민군장병들, 군대안의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개관식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조선인민군 차수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언제나 인민군대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체육설비들과 기재들을 보내주시고 체육선수들을 사랑의 한풀에 안으시여 크나큰 은정을 베풀

어주신데 대해 말하였다.

계속하여 연설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능한 설계가들과 강력한 건설력을 파견해주시고 필요한 자재들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심으로써 종합체육관을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인민군대안의 전체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종합체육관에 모시고 개관식을 진행한 오늘의 영광을 한생토록 잊지 말고 나라의 체육발전의 기둥, 핵심으로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의도대로 우리 나라를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선군

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해 온 나라가 폭풍처럼 내달리는 시대의 벽찬 숨결에 발맞추어 훈련장과 경기장마다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립으로써 모든 체육종목들을 세계 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판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응장화려하게 건설된 종합체육관의 외부와 내부를 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

의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개관식이 끝난 다음 동행한 책임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체육단들이 진행하는 개관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회천발전소 뚉립언제콩크리트치기가 700여일만에 끝났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회천발전소건설장에서 대고 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승리의 포성이 울려펴졌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응대한 구상따라 회천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인건설자들이 선군혁명의 주력군단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제일 어렵고 방대한 뚉립언제콩크리트치기를 700여일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전개력,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하여 10년이상 걸려야 할

기재로의 건설이 불과 2년만에 기본적으로 끝남으로써

장자장상류의 심십신중에 만

년대계의 언제가 솟구쳐올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

속도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기

며 승리의 개가를 울린 군

인건설자들의 불멸의 위훈

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

주체 98(2009)년 9월 건설장

을 찾으시여 분파초가 그

에 대한 철대불변의 충실행

을 지닌 혁명적군인정신의

장조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리고있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

상을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

리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뜻을 총직

하게 받드는 인민군대의 영

웅적투쟁과 비상한 애국열

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회천발

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

고한 전망이 열렸다.

본사기자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개발한 첨단지열설비 생산 시작

는 롱성기계련합기업소를 여

러차례 찾으시여 최첨단돌파

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주체적인 압축기제작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지난 1월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홍남

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끝낸

세계를 보는 혁신적안목으로

최신식지열설비들을 제작하

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최신설비와 기술로 장비

된 선군압축기직장이 일때

서고 어떤 기계도 제작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물질기술

적도가 축성된 것은 첨단지

열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

들어낼수 있게 한 든든한 밀

천이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로 개발한 첨단지열설비

은 나라의 지열에너지리

용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해 공화국이 첨단지열설비

을 들어점으로써 귀중한 재

부인 지열수를 적극 개발리

용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강성대국의 문화수준에 맞게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 또

하나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

되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개발한 첨단지열설비들은

해 공화국이 첨단지열설비

을 들어점으로써 귀중한 재

부인 지열수를 적극 개발리

용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있다.

첨단지열설비는 국

기 위한 준비사업에 온갖 지

성을 바치고있다.

자베드 안씨리 파키스탄조

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

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묘의 정을 표시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리사에는 수많은 명인들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어느 위인의 생일

도 세계적범위에서 기념한 적

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축복해주시는 외국손님들은 2012년 태양절을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브라힘 만투 나이제리아 전국회 상원 부의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12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이다.

다음해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려는 것은 진보적인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하여 김일성주석에 대한 만민의 끊없는 흠토의 정이 뜨겁게 분출될 것이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

것이다.

김일성주석은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지략, 뜨거운 인간애와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인이다.

그의 송고한 풍모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마땅한 도리이다.

진보적인류는 2012년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할 것이다.

북파 남이 서로 적대시하여 대결한다면 분열의 지속과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며 그 최선의 방도는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북파 남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걸은 오직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련방제통일에 배치되는 《제도통일》론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용납할수 없는 대결전쟁론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도 그 무슨 《3대 공동체추진구상》이니,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니 뛰어난 《유사민주주의 체제화의 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제도통일》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 상대방을 해치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북파 남의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없다.

련방제를 실시하면 민족내부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으며 대립과 의견상이를 극복하면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갈수 있다.

련방제통일을 대하는 태도와 태도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과 분열의 지속을 바라는가를 재는 적도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제도통일》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혁신적인 북남공동선언이 가리키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합을 도모하며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면밀히 협력해 나갈것이다.

리현아

심그러운 훈풍이 평양의 풍치 수려한 대동강 쑥섬을 감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 위업실현에 기울이신 크나큰 로고와 그이께서 통일애국의 길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쑥섬이다.

5월의 쑥섬은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로 봄비고 그들마다 넘실거리는 대동강 물결과 마음속 대화를 나눈다.

어언 60여년을 헤아리는 역사의 갈피에 새겨져 있는 그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도쳐온다.

주체 37(1948)년 5월 2일이었다.

대동강수면우에 빠져버린 노젓는 소리 가락맞게 남기며 나루배 한척이 쑥섬을 향해 물결을 헤가고 있었다.

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태고계시였다. 그리고 며칠전에 있은 북파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고위급인물들이 김구, 김규식, 조소앙, 엄향섭, 최동오, 흥명희, 백남운 등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저마다 심중의 회포를 나누고 있었다.

남쪽땅에서 외세와 그에 추종한 매국배족세력의 『단선단정』 조작동에 의해 시시각각 걸어가고 있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전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우기 위해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개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회의에서 제기된 실천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시금 그들과의 회합을 마련하신 기회였다.

민족앞에 조성된 엄중한 국면을 타개하고 통일애국력량의 일치단합으로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단선단정』 음모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중대조치로서 북파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때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신 수령님의 발기와로고에 의해 성사된 련석회의에는 북파 남의 56개 정당, 사회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태양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을 개척하시여

우리 겨레는 머지 않아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며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불멸의 대업적을 이루하신 수령님의 거룩하신 한평생은 민족을 위한 한평생이었고 조국통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근 반세기동안 탁월한 사상과 형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 이끌어오시였다. 자신께서 인민을 출가장 큰 선물을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력사적인 조국통일문건을 보아하신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태양.

그의 백두산악과 같은 자주의 기상, 천리해안의 예지가 비껴있고 불변의 통일의지, 삼천리를 더 안는 넓은 도량과 뜨거운 겨레사랑이 자자구구에 넘쳐흐르는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오늘도 겨레의 가슴속에 밝은 빛을 뿐이고 있다.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시며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 빛을 뿐이 것이다. 본사편집국은 민족의 역사에 가장 뜻깊은 장을 아로새기게 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이번호부터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태양』이라는 고정표제 아래 통일의 길에 바치신 수령님의 생애의 자자자록을 더듬어보는 글들을 게재한다.

김일성주석은 남에게는 철리 라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할수 있다는 귀중한 경지를 밝혀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애국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단합의 경륜이 마련되게 되었고 단결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애족활동을 추동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설

단체 대표들인 정치인, 기업가, 로동자, 농민, 상인, 종교인, 문예인, 학생 등 690여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단선단정』을 단호히 반대 배격할것을 결정했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전정한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세울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처한 때에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남조선에서의 망국적 『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는 련석회의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치한 찬동을 불리일으켰다.

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혁신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하기에 전 남조선 『과도법 의원』 의장, 민족자주련맹 주석인 김규식은 련석회의후 이제는 제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겠다, 모란봉국장총에서 우리 장단에 맞추어추는 춤이 제일 좋았다고 조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당파와

자기 소감을 토로했다. 하다면 앞으로 남조선에서 끝내 『단선단정』이 강행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실천적대응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적지 않은 대표들이 해답을 기다리는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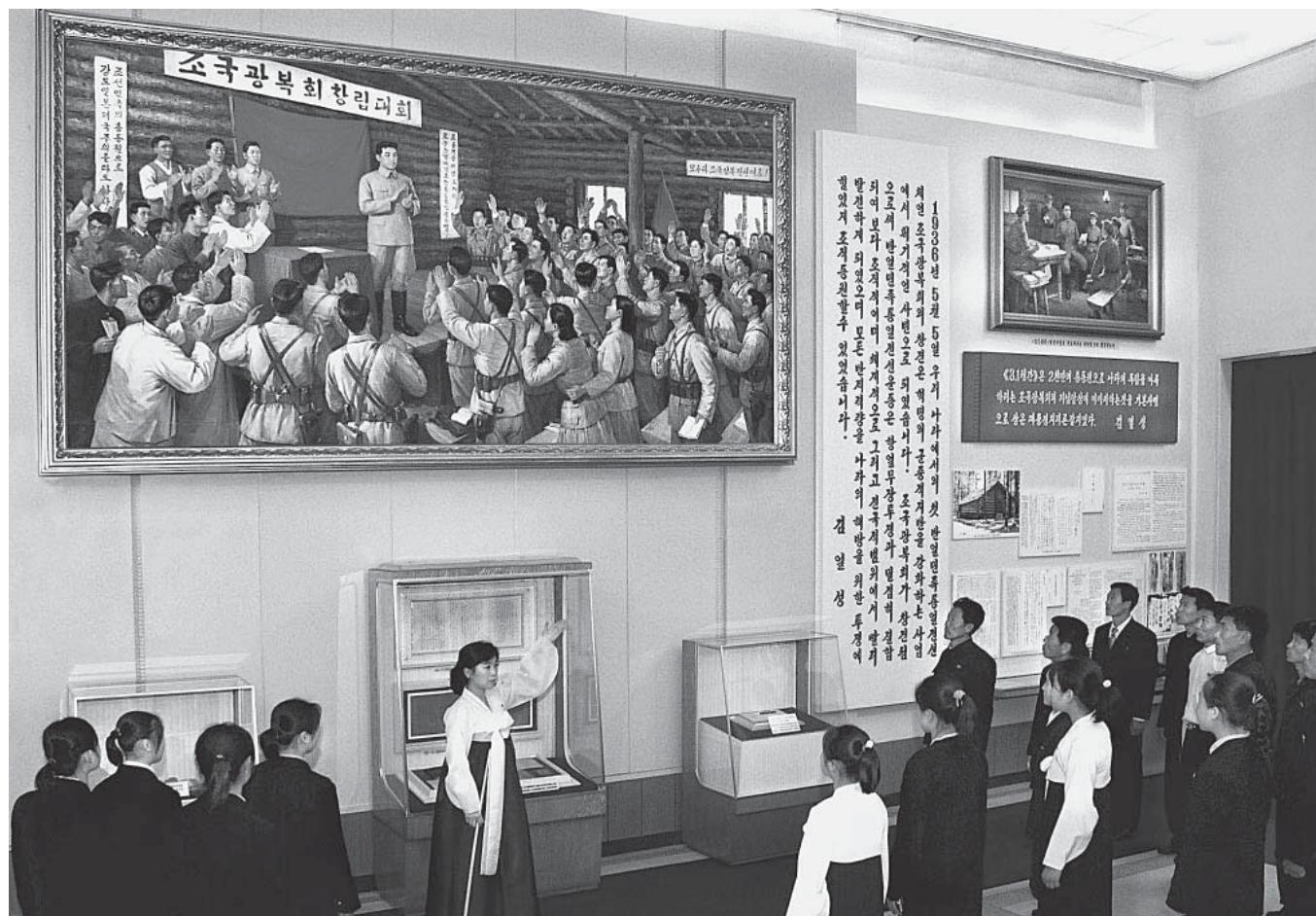
련석회의의 결정을 철저히 시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방도들과 통일의 전방문제를 심도있고 더 신앙을 달리하는 북파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 계층 인사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굳게 단결하고 합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사상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하여 협의회는 남조선에서 『단독정부』가 조작되는 경우 전조선적인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공명정대한 방안에 완전한 겸허의 일치를 본사실상 전조선적인 정치협상회의였다.

련석회의와 쑥섬협의회는 수령님의 자주적인 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 그이의 광복정치의 고귀한 결심이었으며 우리 민족은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리의 첫자리를 놓고 단결하여 나



역사적인 쑥섬협의회가 진행된 장소



민족대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해간다.

— 조선혁명박물관에서 —

민족대단합의 경륜은 세월을 이어

민족의 자주적운명을 개척하고 통성번영을 이루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전통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항일대전의 나날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활동이 그것이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자 독립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앞에는 전민족의 일치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1930년대 중엽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를 흔히 통찰하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울 범민족적조직을 내울것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일흔다섯해 전인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여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마련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관들과 국내외의 명망높은 인사들로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였고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기나긴 로정에서 일제군경들과의 거점되는 협전을 치르는 속에서도 그리고 가도가도 끌이 없는 천고의 밀립과 준령, 계곡들을 헤쳐가는 행군속에서도, 대오가 잡든 숙영지의 깊은 밭에도 사색을 이으시고 탐구를 거듭하시며 손수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규약』, 『조국광복회정립선언』을 집필완성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창립선언에서는 온 민족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가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민중이 한데 몽쳐 행동으로 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경에하는 확신이 표명되었다. 실로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수령님의 빛나는 선전지령과 애국애족애민의 숭고한 로고와 신령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해방의 서uang을 비쳐준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오도록

에서 전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굳게 웅진 대가정으로 만드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강국을 건설하시였다.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여 조국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마련하신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밑에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여 혁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였다. 6.15공동선언의 진수를 이루는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운격의 좌우명, 민족공동의 리념으로 되어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추동하고 있다.

박문철

력사문화유적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이 에로부터 창조한 문화유산들을 다 찾아내고 그대로 보존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뜻이고 가르치심이었다.

평양의 대성산 광법사도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옛 모습대로 복원되어 후세에 길이 물려지고 있는 귀중한 문화적재부의 하나이다. 몸소 수

많은 혁사료들을 연구하시고 때로는 옛 절터를 찾아 세월의 이끼에 물려세라 빛바랜 고적의 흔적을 찾아도 주시며 민족의 넋이 어린 창조물들이 세세년년 빛을 뿐이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온다. 이신 주석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는 평양의 광법사에도 그대로 깃들어있다.

광법사는 고구려 광개토왕 때인 392년에 평양에 세워진 9개 사찰중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에서 혁사가 가장 오랜 건축물로 손꼽히는 절이다. 그런데 지난 세기 미국이

산자락에 희눈이 덮여있고 대동강들도 얼어붙은 한겨울에 그 날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대성산기슭의 광법사를 찾으시였다.

절의 우아한 단청무늬며 합각지붕을 이윽도록 여겨 보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부러져 정해주시였다. 대웅전을 밖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이게 되는 것도 좋고 단청

도 잘 했으며 『태옹전』이라는 현관도 잘 쌓고 불탑도 잘 만들어세웠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당간지주에 대해 옛날의 것을 그대로 세워놓으니 더 의미가 있다고 하시며 옛날에는 불교명절이나 중요한 페식을 할 때 당간지주에 불교도들의 도량으로 훌륭히 진립되게 되었다.

애국심이 열화같고 민족의 혁사와 풍물, 풍속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조례에 깊으신 주석이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광법사는

줄기차게 벌려왔다. 외세에 의해 민족분렬의 어둠이 짙어가던 이 땅에서 민족단합의 혁사, 조국통일의 혁사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펼쳐지게 되었다. 분열의 장벽을 터치는 겨레의 스스로 통일에 국위업의 개척자는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똑같은 민족적대회합을 마련하여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를 안아오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외세와 남조선보수세력의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파감히 벌리고있는 겨레의 애국애족위업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설

화증해주었다. 수령께서는 해방후에도 나라의 분열을 놓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변함없는 의지이고 신념이라고, 반만년의 혁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수 있다는 확신이고 판정이라고 하시며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우리에게는 민족대단결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고, 그리고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통해 이룩한 민족통일전선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며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통일애국의 길위에 빛나고있다.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형성된 밤일민족통일전선은 우리나라 민족통일전선으로 펼쳐졌으며 우리 민족가족들이 모여 모시였기때문이었다. 일찌기 애국의 길에 나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뜁어 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을 알아올수 있다는 심원한 진리를 밝히고 피어린 항일애전의 날 각계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단합시킬때 대한 사상을 내놓으으였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하부조직들이 국내는 물론 멀리 일본땅 오야마를 비롯하여 도쿄에도 있고 교도나 오사카, 후카이도에도 있었다.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형성된 밤일민족통일전선은 우리 나라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통으로 되었고 우리 인민의 억눌기상을 유감없이 파악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의 전과정은 조선인민이 분열이나 대립보다 통일이나 부흥하고 번성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

조국광복회와 같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도 바로 이러한 날에 태어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더듬으시며 나라와 민족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민족해방을 면치 못했다.

우리 선조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우수한 건축물의 하나로 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잘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세월의 풍운과 외세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의해 흔적마저 없어진 수많은 혁사유적들을 찾아내며 복원하고 개건하도록 하신 그이의 보살핌속에 광법사와 같은 하나하나의 혁사유적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우수성을 자손만대로 물려가며 길이 전할 문화유산으로 빛을 뿐이 되었다.

김진삼

승리의 노래 울리는 평양

나는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다.

2012년을 한해 앞둔 뜻깊은 해의 축전 무대는 우리 겨레와 인류의 위인 칭송의 마음으로 환희로웠고 평양의 거리 거리는 위인 흠모 열기로 끓어넘쳤다.

나는 한생을 음악가로 살아오지만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회와 시대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기에 나는 오늘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격사의 오설지에 새기며 가는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타월한 음악정치에 대해 다시금 음미해보려고 한다.

1

나는 1998년 12월 6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연주하는 송가음악회를 열었다.

그후 매해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축음악회를 가지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세계 10대 교향악단의 하나로 오랜 격사를 가진 로씨야 국립교향악단의 지휘단장에도 서보았고 벌가리아방송교향악단도 지휘해보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연한 송가음악회처럼 내자신이 격동되고 관객을 홍분에 휩싸이게 한 공연은 체험해보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진행한 음악회들에서 울려나온 노래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제일 찬가였고 미국의 전역을 감동과 경직으로 휩싸이게 한 그 노래들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장쾌한 심장의 선율이였다.

나는 2006년 4월 중국 심양에서 뜻깊은 《통일음악회》를 열었고 올해 2월에도 뉴욕에서 《2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조국의 통일을 넘원하는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이 음악회들에서는 강성대국건설과 겨레의 통일대전군을 승리에로 이끄는 질세의 위인을 찬양하여 노래 《조선의 장군》과 《축원》을 연주하여 관객들을 다시금 크게 감동시켰다.

한생을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내가 찾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만이 민족의 존엄과 공지가 만방에 빛날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독창적 인 음악정치로 조국인민들을 불러일으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신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전군이며 시대의 행진곡으로 된다고 조국동포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1996년을 잊을수 없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조국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면서 고난속에서도 창조와 건설의 노래를 부르고 시련속에서도 투쟁과 혁신의 노래를 부르며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었다.

말그대로 조국수호전, 사회주의수호전은 혁명의 노래와 함께 벌어진 사상의 대결, 의지의 대결전이였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버리려고 달려드는 침략세력과의 침에 한 대결전에

서 혁명의 노래는 조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었고 제국주의세력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이 세워주신 자주의 나라, 인민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시며 멀고 험한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을 전군의 나팔수로 내세워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우렁찬 합창을 감동과 경직으로 휩싸이게 한 그 노래들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장쾌한 심장의 선율이였다.

그렇게 정세가 준엄한 나날에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5년 동안에 수십번이나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을 보아주시고 지도하시었다고 하니 음악의 위력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고고를 짐작할수 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이 부른 노래 《높이 들자붉은기》는 그 무슨 《변화》와 《봉피》를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을 향해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리지 말리고》로 선언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60여년 전 이곳에서 통일애국을 위한 뜻깊은 협의회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그날은 1948년 5월 2일이였다.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시여 민족분열의 어둠이 짙어 가던 조국강산에

통일독립의 새 환희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회

의에 참가했던 남조선대표들의 피로도 풀어주시고 그들과 이

야기도 나누시기 위해 이곳 쑥

섬에서 협의회를 마련해주시였던 것이다.

버드나무 아래에 펴놓은 수수한 듯자리우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과정에 이룩된 성과

들을 개발하시고 그를 공고화

하기 위한 당면과업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천리에 애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국에 조성된 복

잡한 정국을 환히 밝혀주시는 수령님을 우리 그때

김구, 김규식, 최동오, 조소

양을 비롯한 남녀의 이름에는

각계 인사들은 끝없는 경란에 휩싸여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수령님의 가르침을 한번 더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있었던 그들은 궁금했던

문제들과 함께 자기들이 복에

와서 느낀 소감, 의견들을 스

스럼없이 터놓았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에 명쾌한 해명을 주

시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신

축성있는 활동들을 벌릴때 대

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

이 훌려넘치는 어버이수령님

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지금

히 명철한 가르침심이고 참으

로 묘안이라고 하면서 불신과

편견, 오해로 어울리려던 마음

들을 터치고 협공합작, 련복통

일의 길을 걸을 의지를 굳게 가

다듬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대표들과 함께 강가에

나가시여 고기잡이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며 한없이 소

탈한 모습으로 그들이 마음놓고 휴식의 한때를 즐기게 하

시였다.

지금도 쑥섬혁명사적지를 돌

아를 때면 뜻잊을 힘사의 그

날 남조선대표들과 험없이 마

주었으시여 통일애국의 방략

을 가르쳐주시던 수령님의 자

애롭고 소탈하신 모습이 어려

오고 점심식사시간에 친히 중

어회와 어죽그릇들을 그들의

앞에 옮겨놓아주시며 애듯한

정을 기울이시던 이야기가 생

각나 경건한 마음에 사로잡히

군한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랜 세

월이 흘렀지만 통일전선탑

이 빛나는 쑥섬에 어린 민족

대단합의 위대한 정신은 겨레

온갖 시련의 장막을 걸어내고 려사의 잡음

을 짓누르며 우렁차게 울린 이 노래들은 조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딛고 일어서게 하였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종진군에 더욱 힘차게 멀쳐나서게 하였다.

동서고금의 격사를 보면 령활한 군사전법과 첨단무기로 적을 무찌른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밀려드는 전쟁위험을 노래로 쳐물리친 타월한 선군령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줄로 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1998년 《지하핵시설의 흑》을 떠들며 집요하게 《사찰》을 강요해나섰을 때 태연자약하게 인민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해서서방언론들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지략과 담력을 참으로 놀랐다. 그이는 클린턴이 화약으로도 얻지 못한 승리를 예술공연관람으로 행취하였다.》라고 평하였다.

최악의 역경을 순경으로, 고난의 행군을 타원의 행군으로 바꾸어놓으며 노래와 함께 강성대국건설사를 펼쳐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 《로동신문》 1면에 실린 노래 《승리의 길》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새해 첫날 신문들의 1면에 한해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공동사설을 실고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러한 판례를 깨고 노래 《승리의 길》이 악보와 함께 응근 한면에 큼직하게 실리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민듯 승리를 굳게 민고산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여이 장군님 따라 승리멸치리 ...

2012년을 한해 앞두고 신문지면에 실린 노래 《승리의 길》은 고난의 천리를 걸어온 조국인민들의 눈앞에 이제 곧 행복의 만리가 펼쳐지게 된다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신심과 락관의 선언이었다. 노래는 또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시대의 진군가였다.

승리의 노래높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는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노래 《승리의 길》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남조선의 인터넷과 신문, 잡지들, 아메리카지역 동포신문들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신문 1면에 김일성주석의 넘원을 기어이 풀려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승리의 길〉이라는 노래를 실었다. 〈북이 판례를 깨고 노래 〈승리의 길〉을 올해 〈로동신문〉 신년호의 1면에 실은 의도를 다 알수 없지만 분명한것은 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공화국에서 울리는 노래는 창조와 건설, 위훈과 승리의 힘찬 메아리이기도 하다. 천만대적도 이기는 백승의 담력이 여기에 있고 고난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기어이 승리를 멀치는 불굴의 정신력도 여기에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음악을 중시하고 음악을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것이 음악정치이며 음악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에 음악정치의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이 없는 정치와 같다 그이의 말씀은 음악과 정치의 편리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독창적인 발전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음악정치가 구현되고 있는 공화국은 말그대로 노래의 나라이며 노래와 함께 밝은 앞날을 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교향악단연주를 지원해오면서 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았고 뜻깊은 연주회도 가졌다.

그러나 공화국에서처럼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노래를 부르고 어디 가나 노래소리가 울려져지며 땅만과 회열에 넘치고 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였다.

가장과 일터마다에서 노래가 일상적으로 울려져지는것은 두말할것 없고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전국군로자들의 노래경연,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들과 공연, 기업소들과 민군부대들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예술소조활동을 비롯하여 온 나라가 노래로 홍성이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도 힘 있게 추동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격사적인 평양상봉으로 활짝 열어주신 6·15통일 시대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서로 얼싸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 《조선은 하나다》, 《통일렬차 달린다》의 노래를 부르며 통일대전군을 떨리여왔다.

우리 민족의 격사를 놓고보아도 원시시대에 《거부기노래》와 같은 로동 가요들이 불리워졌고 고대에 이르러 《공후인》과 같은 개인창작의 서정가

요들이 창조되었다.

대결정책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

오늘 남조선민심은 동족사이의 불신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단합,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보충선거는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민주개혁세력에게 여지없이 침폐당하였다. 이것은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부를 일삼은 보수집권세력이 당한 응당한 징계이다.

이번 선거에서 《실용정부》와 《한나라당》이 대 침폐를 당하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는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위협을 질게 한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보충선거는 조선반도정세가 최대로 불안한 때에 진행되었다.

지금 북남관계는 대화도 없고 협력도 빠듯도 없으며 전쟁위협만이 떠도는 살벌한 상태에 있다. 어제는 서해에서 조선전쟁이 후 최대규모의 군사적 충돌사건이 일어나 전쟁위협을 현실화시켰고 오늘에는 또 어디에서 군사적 충돌사건이 터지고 전쟁으로 화할지 모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북과 남의 어느 일방에게도 리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전쟁이 터지면 말그대로 민족의 재난이고, 제일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린이와 성들을 비롯한 인민

지금 남조선의 통일부는 《3대 공동체추진구상》,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을 운운하며 그를 위한 《설명회》와 《정부내 협의》,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의뢰》니 하며 복단소동을 피워대고 있다.

알려진 대로 《3대 공동체추진구상》은 《통일을 단기형(10년)과 중, 장기형(20~30년)으로 구분》하고 그에 필요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있다고 한다.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또 하나의 대결책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의 엄중한 사례를 놓고 보아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북남관계 개선이다.

북남대화가 없이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고 관계 개선이 없이는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북남관계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으며 접촉과 협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꽉 막힌 단절 상태에 있다. 북남대결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무엇을 노린 《기반조성사업》 인가

게 한데 대한 인민들의 원성이 깔려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비꾸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나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내미는 대화의 손길을 계속 뿌리치면서 돌아앉아 누가 거울펴보지도 않는 《통일구상》이니 뛰니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 자체가 격에 맞지도 않은 피이한 행동이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제

은 선거과정을 놓고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반공화국대결의식을 악랄하게 고취하였으며 지어 《색갈》론을 다시 연출하였다.

《천안》호침몰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반공행사들을 도처에서 벌려놓았고 대북폐차살포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연평도에서의 포사격 등으로 대결분위기를 한껏 조장하였다. 보수언론들까지 나서서 합친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전으로 강원도주민의 70~80%가 북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퍼뜨리고 선거가 있기 하루전에는 민간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사건을 놓고 그 누구의 소행일 가능성에 크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야당후보들에게 《색갈모자》를 뒤집어씌우는가 하면 지어 저들이 감행한 《불법 쿨센터》사건도 그 원인이 《천안》호사건에 있다고 확장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하나 《안보》 선거로 만들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이에 민주개혁세력은 동해안평화 공업지구조성, 금강산관광재개 등

총포탄이 오가는 혐약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분열된 후 지금까지 북남관계에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의 상태에 처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 전쟁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보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대침폐를 한 것도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으로 전쟁위협을 국도에 이르고 있다.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또 하나의 대결책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의 엄중한 사례를 놓고 보아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북남관계 개선이다.

북남대화가 없이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고 관계 개선이 없이는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북남관계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으며 접촉과 협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꽉 막힌 단절 상태에 있다. 북남대결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현대관정용》 광고

당연한 반응이다.

페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는 현장은 후꾸시마 원자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방사능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최근 후꾸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2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바리기현, 지바현)에서도 여성 9명 중 4명의 모유에서 방사성 요드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사현장은 그보다 더 가까운 60Km 거리에 있다. 그러니 방사능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대인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 광고를 본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공사현장에 남조선 사람들을 일부로 모집하려고 하였으니 일본이 조선장사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고가 마구 혹사하고 목숨을 빼앗은 만행을 편상계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 대상이였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일본의 조선민족에 대한 적은 심부름꾼이라

들은 사지판에 내몰려는 일본의 비열한 처사는 과거 조선강점기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고가 마구 혹사하고 목숨을 빼앗은 만행을 편상계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 대상이였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일본의 조선민족에 대한 적은 심부름꾼이라

들은 소리로서 무시무시한 인물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 《저승사자》가 다름 아닌 통일부라고 남조선의 기업인들이 절규해 나선 것이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많은 기업인들이 6.15 대에 열린 교류와 협력의 길에서 북과 함께 학교 등을 통해 협력을 기울여온 사업체들이

그 도그럴 것이 보수당국은 집권하기 바쁘게 통일부를 암세워서 지난 10년 동안 《북

느니. 《페주기》느니, 《대북협력이 북의 핵무기와 미싸일개발로 돌아왔다.

이로 하여 10년간 전하여온 남조선 현대그룹

원래 《저승사자》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로서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사람의 넋을 데

는 한 기업인의 심정만이 아니라 수많은 대북협력기

인들의 쌓이고 날은 물분

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로 하여 10년간 전하여온 남조선 현대그룹

의 금강산관광사업이

되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

던 개성공업지구사업도

부남화해와 민족공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섰다.

결과는 동족대결을 부르짖은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주장한 야당들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남조선의 민족은 대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 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로총파 《한국로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족본부,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5.1절 121돐에 즈음하여 남과 북의 로동자단체들이 함께 하기로 계획되었던 이날

자주, 평화통일의 마치소리 힘차게 울려나갈 것을 호소

의 집회가 당국의 발악적책동으로 분산개최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결론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의 자주통일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현당국을 협력, 련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남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로총파 《한국로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족본부,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5.1절 121돐에 즈음하여 남과 북의 로동자단체들이 함께 하기로 계획되었던 이날

모든 로동자들이 오늘의

본사기자



자주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인민들

지금 남조선에서 통일부 장관 현인 백남관계를 결고들며 동족대결을 계속 앞장서 벌리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벌리고 있는 비렬한 책동이 바로 그러하다. 그는 《국회》에 상정된 《북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북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협력하여 《협조》를 구걸해나섰다.

실로 낯뜨거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면 저들에 문제로 된 최악의 북남관계위기를 어떻게 풀겠는가 하는데 머리를 쓰고 공을 들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족대결적인 《북인권법》을 제정해나가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출현하기 전부터 《통일부폐지론》을 제창했고 《북은 선량한 이웃이 아니다》, 《북과 대명전쟁에 같이 살수 없다》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까지 토해낸 장본인이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감투를 쓰고 해온 일 이란 하나님에서 옆까지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일뿐이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혼인력을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는 인물》로 락인하고 그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를 《통일무관심부》, 《대결부》라고 규탄해나고 있겠는가.

현인택이 북남관계에 기친 해독적 후파는 이루 다 렇게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중요性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운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그의 반통일적인 진속을 날낱이 깨닫게 되었다.

이미 널리 퍼트린 것처럼 현인택은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고 기를 쓰고 발악하는 악질 반통일대결분자이다.

그는 현 《정부》가 출현하기 전부터 《통일부폐지론》을 제창했고 《북은 선량한 이웃이 아니다》, 《북과 대명전쟁에 같이 살수 없다》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까지 토해낸 장본인이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감투를 쓰고 해온 일 이란 하나님에서 옆까지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일뿐이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혼인력을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는 인물》로 락인하고 그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를 《통일무관심부》, 《대결부》라고 규탄해나고 있겠는가.

현인택이 북남관계에 기친 해독적 후파는 이루 다 렇게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중요성은 북남관계 개선을 토해낸 것이다.

민족을 반역한 죄는 결코 용서할 수 도, 죗을 수도 없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도전하여 대결의 길로 계속 줄달을지는 현인택이 갈 곳은 파멸의 시궁창밖에 없다.

최명재

제와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통일부가 북과 남의 민간대결을 단체로 벌리고 있다. 어민들은 그들대로 통일부에 대해서 문제에 같이 살수 없다.》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까지 토해낸 장본인이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감투를 쓰고 해온 일 이란 하나님에서 옆까지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일뿐이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혼인력을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는 인물》로 락인하고 그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를 《통일무관심부》, 《대결부》라고 규탄해나고 있겠는가.

현인택이 북남관계에 기친 해독적 후파는 이루 다 렇게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중요성은 북남관계 개선을 토해낸 것이다.

북남관계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해로운 것만 끌어내는 《저승사자》라고 표기되는 《반통일부》, 《대결부》, 《통일무관심부》 등으로 락인하는

오늘에 와서는 통일부를 《저승사자》라고 표기하고 있다.

북남관계에서 《저승사자》로 표기되는 것은 대북협력사업을 대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는 대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는 대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는 대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는 대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족위원회로동본부의 주최로 1일 서울에서 로동자 통일집회가 진행되었다.

《저승사자》

것을 강요한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지어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조선

기업인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던 운동장을 감안하여 차단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청원도 수차례나 했었다.

민심을 등진자는 천벌을 면치 못한다

남조선

민심백서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 악정에 대한 각계층의 원한과 분노가 국도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신문, 방송, 인터넷에는 괴뢰당국을 비난하는 글들과 만화, 동화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루하루 가 지 옥 같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괴뢰보수당의 집권 3년을 계기로 여론조사들이 진행되었다.

여론조사들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더 못해졌다. 살기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주화의 후퇴, 독재통치의 부활, 국민과의 소통부재, 경제와 민생파탄, 안보위기를 그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남조선언론들은 괴뢰당의 집권 3년을 종화하는 글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를 가져온 악몽 같은 3년』, 『파렴치와 후안무치, 물질적의 3년』, 『무능파구질, 국제적망신으로 이어진 3년』, 『희망파티를 버린 지옥 같은 3년』이라고 한걸같이 평하였다. (『현대신문』 2011. 2. 2, 『한겨례』 2011. 3. 4)

괴뢰당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다.

무능과 무책임, 무모함으로 일관된 『3무정권』, 외교는 굽신, 경제는 불신, 북남관계는 망신의 『3신정부』, 물가대란, 실업대란, 외교분란의 『3란정부』, 인사는 날치기, 경제는 망치기, 외교안보는 뒤북치기의 『3치기 정부』 등 별의별 수치스러운 이름이 다 붙어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강행한다고 하여 『막무가내정부』, 아무 말이나 망탕하여 『설인공화국』,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기를 잘한다고 하여 『남탓정부』, 거짓말을 밟더니 하여 『양기초년정부』,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고 강파해치기만 좋아한다고 하여 『청개구리정부』, 그런가하면 짐짓을 벗기면 벗길수록 부정부폐가 계속 나온다고 하여 『양과정부』, 『시공창정권』이라는 오명도 불었다.

남조선의 교수단체들은 괴뢰보수당의 집권 3년을 계기로 발간한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현 정권의 독선과 독단으로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괴롭혀 생활했던 민주주의는 형태만 남았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단 한걸음도 나아가기는커녕 6.25이전의 상태로 퇴행하였다.』고 절규하였다.

남조선운동단체들은 독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하면서 괴뢰당의 반인민적 악정을 『식인정치』, 『야만과 광기의 공포정치』, 『국민소통이 아니라 국민소탕』이라고 단죄하고 괴뢰당국에 대해 『민주주의를 죽이고 서민을 죽이는 살인정권』, 『국민무시정권』, 『불통정권』 등으로 규탄하였다. (『프레시안』 2011. 2. 10, 3. 2, 『노컷뉴스』 2010. 12. 28)

남조선항간에는 한때 집권자의 이름을 딴 『명박산성』과 『명박도』 이야기들이 나돌아 화제가 되었다. 『명박산성』은 괴뢰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여 거리에 떨어져나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대형집합들을 성벽처럼 높이 쌓고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조국통일연구원은 괴뢰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언론에 반영된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백서로 냈다.

되고 섬이 망하여 후세에 전설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섬의 모든 지명과 배, 항구, 음식, 샘물 등 이름들이 모두 현 『정권』의 장, 차관과 『국회』의 원 등 통치배들이 이름을 딴것으로 하여 더 흥미거리로 되었는데 이 풍자는 얼마나 유명하였던지 그림과 동화상으로까지 만들어져 널리 퍼졌다. (『데일리서프라이즈』 2009. 2. 2, 『주간경향』 2009. 2. 10)

남조선출판물들은 현 집권자를 히틀러에 비유하여 나치스식 제복을 입고 헤리고수암을 단 역도가 『대한민국』 블로그를 미친듯이 몰아가는 만화가 실려 판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지난 3년은 『공포와 불안의 숨막히는 기간』, 『군사독재시기에도 이처럼 시간이 더디게 가지 않았다.』 『죽음의 재까지 뿐려져 있어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멸족』 2009. 10. 30)

『명박도』는 남조선인터넷에 실린 글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시나요?』에서 나온 섬이름이다. 현 집권자가 세웠다는 그 섬에는 물도 먹지 물이고 모는데 다른 들어있으며 죽음의 재까지 뿐려져 있어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멸족

살길이

남조선인터넷에 『밥가마이야기』라는 글이 올라 사람들을 크게 웃겼다.

그 내용인즉 리승만이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사를 하나 장만했는데 박정희가 농사지어 해놓은 밥을 최구하가 먹으려고 뚜껑을 열다가 손만 데렸고 전두환의 가로채가지로 깨끗이 빼웠다. 남은 누룽지를 티로우가 물을 부어 페떡였고 김영삼은 남에게 없나하고 박박 굽다가 가마에 구멍이 나자 옆파 바꿔먹었다. 현 집권자는 선임자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주어 사온 고장난 전기밥솥을 고장나고 하면서 전작을 『대한광화국』이라고 하였다. (『뉴시스』 2011. 4. 5)

괴뢰당이 얼마나 인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우롱하였던지 이제는 그들이 『정부』가 콩으로 예주를 쏟아도 믿지 않을 정도이다.

지난 2월 1일 남조선집권자는 TV로 이를바 『대국민답화』라는 것을 하였는데 서울역대 합성에서는 『대국민답화』를 시청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국제체육대에 올려놓고 신나게 부채질하다가 다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8. 7. 14)

이것은 현 집권자의 기만적인 경제 살리기 늘음에 대한 신랄한 조소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당이 선거때 『474』 공약이요 뭐요 하면서 경제를 추켜세울것처럼 오히려 떠들었지만 그것이 빙밀 공부로 되었다는데서 『칠수 있는 사기는 다 칠 공약』, 설업자 400만명, 『국가』 체무 400조원, 개인 빚 700조 원을 초래한 『447』 공약이 되었다고 조소하였다. (『오마이뉴스』 2009. 9. 24, 『아시아경제』 2010. 2. 9)

남조선 경제정의 실천시민련합은 지난 2월 괴뢰당이 내세웠던 민생관련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적이 없다고 하면서 집권 3년 성적을 랭킹제로 평가하였다. (『경향신문』 2011. 2. 24)

괴뢰당의 대결, 전쟁동파반공화국심리전 늘음에 민심이 얼마나 격노하였는가 하는 것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와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등지에서 국보수수께끼들이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불순한 빠리를 날리려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쫓겨난 사실이 잘 말해준다.

한 정객은 리명박여도의 말바꾸기와 거짓말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고 하면서 집권자의 이름자체가 영어자료로 보면 『가장 뛰어난 거짓말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동아일보』 2008. 11. 10)

괴뢰당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은 정신병원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어느날 『대통령』이 정신병원을 찾았다.

병원안의 정신환자들은 일제히 그를 『환영』 하여 『만세』를 불렀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대통령』이 병원원장에게 『저 사람은 왜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그날 아침에 계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 이었다.

돈있는 자들만이 병치료를 할 수 있고 돈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죽게 된다는 뜻에서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프레시안』 2009. 10. 6)

경제파탄으로 인한 실업사태가 심각하여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면 취직할수 없다는데서 『삼일절』, 20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이라는 말이 널리 유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2009. 12. 19)

돈있는 자들만이 병치료를 할 수 있고 돈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죽게 된다는 뜻에서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프레시안』 2011. 2. 10, 3. 2, 『노컷뉴스』 2010. 12. 28)

남조선항간에는 한때 집권자의 이름을 딴 『명박산성』과 『명박도』 이야기들이 나돌아 화제가 되었다. 『명박산성』은 괴뢰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여 거리에 떨어져나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대형집합들을 성벽처럼 높이 쌓고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그리고 집권하기 바쁘게 그 무슨 『대학자률화』와 『대학민영화』를 떠들며 『반값등록금공약』을 백지화하였다. 이것을 기회로 돈에 눈이 먼 국립대학들과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을

경쟁적으로 끌어올리였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지난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1년 등록금은 2001년에 비해 각각 82.8%, 57.1%나 경증 뛰어올랐다. 등록금이 사정없이 뛰어

온라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힘들 벌어들인 돈을 먹지도 않지도 못하고 자식들의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바쳐야 하였다. 결국 돈이 없어 공부

를 못하는 대학생들은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원에서도 지난 3개월간 4명의 학생이 자살한데 이어 현직 교수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등록금 등 경제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원을 설립

민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절망시대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민뉴스』 2011. 2. 28, 『현대신문』 2011. 2. 5, 『문화일보』 2011. 2. 1)

남조선인민들이 오죽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MB시대 아우성집회』라는 것까지 열었겠는가. (『오마이뉴스』 2009. 10. 20)

6. 27, 7. 11,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 4. 24)

현 집권자에게는 2008년 4월 해외 첫나들이로 미국을 행각하여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골프장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부숴의 운전자 노릇을 한데서 유래되어 『골프차운전수』라는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미국 상전 앞에서 역겹게 이양을 면다고 하여 『에완용개』라는 별명도 붙어 있다. (『동일뉴스』 2008. 6. 4, 『오마이뉴스』 2008. 6. 26)

남조선 출판물들은 괴뢰당이 합성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걸어 북남대화를 외면하고 무력증강과 군사연습, 모략대결책 등에 광분하는데 대해 커다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괴뢰당이 합성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한데 대해서는 대다수가 믿을수 없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양심적인 전문가, 학자들은 편이은 합동군사연습으로 미국과 괴뢰당이 합성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으로 감시가 삼엄한 해역에 북의 잠수정이 물에 침투하여 함선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백 가지의 과학적자료들을 제시하여 괴뢰당의 조사결과를 반박하였다.

남조선언론단체들은 『천안』

합친 상조사원보도검증위원회를 내고 『리명박집권 국민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4·19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땅은 리승만정권에 다르지 않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2008. 2. 4, 『구걸외교』, 『광장외교』, 『동신외교』, 『조공외교』, 『구걸외교』, 『광장외교』 등 갖가지 오명을 다 끌이면서 저주를 보내고 있다. (『노컷뉴스』 2008. 5. 28)

못 살겠다

갈아엎자

3개의 편지를 후임자에게 넘겨주 시오.』라고 써여있어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괴뢰당을 풍자한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남조선언론들이 괴뢰보수당의 퇴임을 얼마나 학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인터넷에 『MB퇴임시계』가 등장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시계는 2008년 5월 21일 오후 4시 50분을 기준으로 역도가 퇴임하게 되는 1682일 7시간 10분 54초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주고 있다. (『경향신문』 2008. 5. 22)

2008년 9월 남조선의 『KBS』는 흥페지에 『대통령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용자 질문란』을 마련하였다.

그러자 1만 7000여명이 즉시에 『그냥 사퇴하면 안되는가.』라는 글을 올려 괴뢰당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참세상』 2008. 9. 4, 『오마이뉴스』 2008. 9. 8)

남조선항간에서는 현 집권자의 영어자리를 『MB』를 지루한 장마미에 빗대어 『나라를 망치는 엠비』가 이제는 그쳤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프레시안』 2009. 7. 21)

남조선동민들은 보수당이 농민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전봉준이나 힘겹정처럼 세상을 뒤집을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2MB탄핵송』(탄핵노래)을 만들어 인터넷에 『지금의 현실을 참다 못해 노래를 만들었다.』는 글과 함께 올렸는데 멀티사이트에 52만 9,000여명이 접속하여 복사해가는 일도 있었다. (『뉴스메이커』 2008. 5. 15)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현 『정권』을 『말기암환자』라고 평하였다.

이상의 민심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도 험한 것은 여기에 담지 않았다.

괴뢰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은 폭발적전에 이르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등진자는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민심의 벼랑을 밟은 보수당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통일연구원

주제 100(2011)년 4월 25일 평양



봄이 나는 내 나라

주체 철생산체계

수천년이라는 오랜 세월 철은 인간에게 복무하여 왔으며 철기시대의 시작으로 인류력사는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 왔다. 19세기 전반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도 야금공업의 뒤받침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세계경제의 성장도 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정보산업시대인 현세기에도 철 생산량은 해당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는 18세기에 개발된 콕스에 의거한 용광로공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연단을 리용하여 만든 콕스는 철생산원가를 높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콕스제 철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생산에 도입할 수 있는 완성 단계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존의 흑색야금공업에서 《속명》으로 밖에 달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콕스에 의한 철제공법을 타파하고 자기식의 새로운 야금법을 개발하고 완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금속공학부문의 과학자들과 야금공기지들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퍼터는 탐구와 혁신

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여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주체 철생산체계의 완성이라는 빛나는 승리가 이루될 수 있음을 알았다.

주체 98(2009)년 12월 주체 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체 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사포쳐 홀려내리는 주체 철쇠물을 바라보시며 자체의 기술로 주체 철에 의한 제강법을 완성한 것은 3차핵시험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 이듬해 10월에는 공화국의 대야금기지인 김책체

철련합기업소에서 고속환원법에 의한 주체 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철생산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었다.

주체 철을 나라의 야금공업의 종자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생명선으로 내세워 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김철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전후 천리마다 조시기의 투쟁기 풍파 창조정신을 본받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독특한 주체 철용광로를 건설하고 철법을 완성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며 오직 전진만을 아는 그들은 구조가 간단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이 낮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주체 철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대답하고 통하여 큰 작전을 벌리였다.

주체 철 생산공정에 필요한 고속환원로의 산소용해로 등에 기초축성과 건축공사, 방대한 설비제작과 조립 등을 동시에 내밀며 팀체전을 벌려 불과 40여 일만에 생산공정을 완공하고 20여 일만에는 첫 쇠물을 뽑아냈다.

또한 새로 꾸린 주체 철생산공정과 이미 운영하고 있던 산소전로, 첨단기술을 받아들인 원호식 현속 조리기 흙탕식 공정으로 일체화함으로써 한번 뽑인 쇠물로 식

힘없이 압연 강재까지 뽑아내는 전일적인 주체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장업계 통조종프로그램, 로상태의 예측 및 조종프로그램을 비롯한 수십 건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로의 온도, 압력, 류량 등을 자동적으로 감시 조종하는 지령실, 조종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주체 철생산의 CNC화가 빛나게 실현되었다.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갈탄을 비롯하여 100% 국내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 철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철생산이 부쩍 늘어나게 된 것은 공화국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대한 승리이며 세계 야금공업의 한계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의의 깊은 사변이다.

경제 강국건설의 기둥인 금속공업에서 주체화가 실현된 이 경이적인 사변은 자기 땅에 발을 놓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최첨단 돌파전을 힘 있게 벌리고 있는 공화국의 경동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도 공화국에 확립된 새로운 철생산체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주체 철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됨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주체 철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됨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대교조선군에서 또 하나의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으로써 제임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우리 민족의 차문화 (1)

차는 누구나 즐겨마시는 음료이다.

하기에 오늘날 차는 커피, 쿠아카차와 함께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세제3대 기호음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차가 인간생활의 필수품으로 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세월이 흘렀다. 그 과정에 생겨난 일화들도 많고 웃지 못할 회비극도 적지 않다.

차 꽂이는 도구인 쟈모와 르가 로씨아를 상징하는 생활용품으로 되고있는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차가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력사에 유명한 《아편전쟁》(1840~1842)도 사실상 차와 비단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1776년)이 일어나게 된 때는 차도 한몫 하였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이라고 불리우는 임진조국전쟁(1592~1598)을 가리켜 일본에서는 일명 《람치전쟁》, 《도자기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다른 차도 한몫 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렇듯 인류역사, 인류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차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차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음료였다.

반반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차나무를 재배하고 가공하며

마시면서 조선민족고유의

차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차의 약리적 효과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머리를 복잡해지고 어지러울 때 한잔의 차를 놓고 스스로 명상에 잠겨 머리를 식히며 전후사를 가다듬어 마음의 수양을 쌓아왔다.

이를테면 차를 정신적여유로 얻게 하는 인간생활의 필수품으로 간주해왔다. 우리 선조들은 차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깨끗한 마음, 어진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아 《차도》라는 아름드리 차의 덕을 일러왔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를 밝게 한다.
둘째, 귀를 밝게 한다.
셋째, 눈을 밝게 한다.
넷째, 입맛을 돋운다.
다섯째, 술을 깨게 한다.
여섯째, 피로를 풀게 한다.

일곱째, 목마음을 몇개 한다.
여덟째, 추위를 막게 한다.
아홉째, 더위를 물리친다.

이렇게 아름드리 차는 차의 덕을 후세에 전해를 정도로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서 차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음료였다.

보통 차(茶)라고 할 때 차나무잎을 우려서 마시는 음료를 말한다. 다사말하여 차나무잎을 가공하여 만든 록차를 차라고 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최근 콩나물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암예방효과

암환자의 경우 그 대부분이 비타민C가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 실험 결과 건강한 사람은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만 암환자들에게서는 하나같이 나타나지 않았다.

— 감기치료와 해정효과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은 건강한 사람인 경우 65mg이면 되지만 암을 예방하려면 150mg이어야 한다. 콩나물은 싹터 자라는 과정에 지방이 현저히 감소되는 대신 섬유소와 비타민류가 많이 증가하는데 특히 비타민A와 비타민C의 양이 대단하다고 한다.

— 뇌기능향상효과

콩나물에는 사포닌, 비타민B, 비타민C, 아미노산 등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뇌의 혈액을 유지해주고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한다.

— 피부미용과 변비예방효과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의 성격은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일반적 으로 붉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데 비해 뜨거운 색과 같은 차는 수동적이며 평화적인 경향이 있다

고 한다.

차나무는 보통 자연 상태에서 7~8m 자라며 차잎생산을 위하여 재배하는 것은 보통 1~1.5m정도이다. 그러나 인디아의 앗차나무처럼 높이가 10m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것도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려진 차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콩나물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사포닌 등 간기능을 높여주는 성분들은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비타민A, 비타민C와 카로리가 낮은 아미노산, 효소는 장에 오래 묶어 있는 배설물을 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한다.

— 감기치료와 해정효과

밝혀진데 의하면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이 감기바이러스와 알콜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한다. 또한 콩나물속에 함유된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메티오닌, 효소도 감기와 몸살치료, 해정에 유효한 성분이라고 한다.

— 뇌기능향상효과

콩나물에는 사포닌, 비타민B, 비타민C, 아미노산 등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뇌의 혈액을 유지해주고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한다.

— 피부미용과 변비예방효과

그것은 우연하게도 색채의 심리학적인 작용과 일치한다.

식생활과 성격 (정열) 와

붉은 색, 노란색의 의미(평화, 안정)가 그대로 식품의 색깔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사기자

리조시키 유명한 유학자였던 룰곡에게는 장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웃사람과 내기를 하여 말을 다 폐우고 몇 해째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룰곡은 스승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룰곡은 스승이 그 사람과 장기를 두도록 하고

평양을 소개한 우표 발행

— 국가 우표 발행 국에서 —



84원우표: 개선문

개선문은

황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여

조국을 해방하고

평양에 개

선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에 길이 전하여는 인민들의

절절한 헌신입니다.

112원우표: 당창건사적관

당 창건 사적관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해방직후에

개시면서

조선로동당을 창

건하시고

승리에로

영광으로

大国하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

는 사적관입니다.

140원우표: 만경대고향집

만경대고향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집

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우표들의 크기는 52×34mm입니다.

본사기자 김준경

스승을 도와 준 룰곡

자기는 구경하기로 하였다. 약속대로 룰곡은 그 집을 찾았다가 주인과 스승사이에 벌어지는 장기를 한판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룰곡은 혼자 그 집 주인을 찾아갔다. 룰곡은 집주인에게 그가 스승에게서 데려온 수법을 《28수법》이고 룰곡이 쓴 수법은 《3천30법》이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다가왔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다급한 일순은 어쩔수없이

뒤걸음치며 동생의 만용을

저지시키려고 소리질렀다.

《나가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신성한 과학연구장소다.

술집으로 알고 찾아왔다

면 씩 나가!》

《신성하구말구요. 누님은

그 과학이 신성한지 몰라도

인간 김일순은 결코 신성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가 이젠 감히 나를 모

욕해? 아...》

《모욕이라면 참으세요.

그러나 무섭고도 가혹한 진

실을 봐야 해요.》

《듣기 싫다! 주정뱅이 한

해서 진실은 무슨 진실?》

일진은 발을 다시 한번 힘껏 구르고나서 고개를 쳐들었다.

《나에게 부모님들을 찾아야 했고 알고 싶었던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협오감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동생의 돌변하는 태도와 웨침에 김일순은 석상처럼 굳어졌다.

주 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